

## 年 頭 時 論

# 水道協會 創立 4반세기에 새 章

21世紀를 눈 앞에 두고 '97年 새해가 밝았다.

1908年! 서울 長安에 수돗물이 쏟아지는 光景은 開化의 象徴이었으며 近代化의 첫걸음이었다.

이제 우리 上水道는 總生産 2000萬<sup>t</sup>/日이라는 水道大國으로 飛躍하였으나 수돗물에 대한 不信等 여러 難題를 안고 있다.

眞正한 水道大國이 되려면 全國 어디서나,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맛 있는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와야 된다.

우리 水道가 外形뿐만아니라 더욱 內實있게 發展되어 先進化된 水道大國이 되려면 먼저 全國 650餘個 給水都市가 하나로 紐帶되어 各自가 知得하고 開發한 新技術 및 管理·運營技法과 그 經驗이 相互 活潑하게 交流되어 이를 共有하고 活用되어야 하며 共同으로 水道發展을 위한 研究·開發을 계속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적어도 全國 200餘 市·郡 水道事業者가 水道法에 의한 水道人 共同의 廣場인 韓國水道協會로 힘을 합하는 일이 急先務이다

官에서 모든 水道事業을 運營하고 있는 우리 水道事業의 特性上 水道協會의 主體이어야 할 水道事業者인 地方自治團體의 參與없이 協會의 發展은 限界가 있으므로 協會는 定款을 全面改正하고 水道事業者들의 參與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水道事業者 中心으로 改編되어 이들을 中心으로 運營되어야 할 것이다.

協會의 位相과 그 機能如何는 바로 그 나라의 水道發展의 尺度가 되므로 協會가 活性化되고 제 機能을 發揮하게 되어야 우리 水道發展을 더욱 促進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韓國水道協會 創立 4半世紀에 새 章은 펼쳐졌다.

모처럼 造成된 協會 活性化의 霧圍氣를 高揚시켜 全水道人이 悤心하여 '97新年을 우리 水道의 革新的인 發展과 再跳躍을 위한 元年으로 삼아 水道協會가 거듭 태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努力할 것을 다짐하기로 한다.

1997年 年 頭

會長 郭 永 駟